

2010년을 보내면서



금년 3월에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. 선배회장님들이 무리 없이 이끌어 온 협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.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적 문제였다. 회비는 잘 들어오지 않고, 국고보조를 인건비로 쓸 수 없는 것이고, 이자 수입도 시간이 지나야 들어오는 것이다.

다행이도 환경부의 용역사업인 한국형생태관광발전 포럼을 우리 협회가 운영하게 됨으로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. 한때는 간사를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지만 부회장단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.

본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회장들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의 협회 운영과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다. 이것은 성과라하면 성과로 생각한다. 또한 조경업과 출판업을 하시는 전문경인을 2분을 부회장으로 영입하게 된 점은 회장단의 인적구성과 기능이 강화 된 셈이다.

8월의 종합학술조사는 큰 업적이라 할 수가 있다. 이번 조사는 충남 보령의 오서산 일대에서 8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. 본 조사에서 깃싸리버섯, 홍전알락나비, 흑백알락나비 등의 희귀종이 발견이 되었고 앞으로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더 많은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한국형 생태관광포럼연구는 본 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환경부용역 사업으로 9차례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다. 이번에 은평구의 신도초등학교와 자연보호 활동지원을 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초등학교생들의 생태자원의 보호에 한층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. 또 하나는 환경부자연보전국장을 모시고 내년도 환경정책 집반에 걸쳐 초찬 포럼을 12월 2일 코리아나 호텔 다뉴브에서 개최하여 내년도 정부의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. 여기에는 본 협회 임원진, 명예회장님,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뜻있는 포럼이 되었다.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본 협회 주관으로 국방부 자연보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. 본 대회에서 자연보존 보호가 우수한 육군 제50보병사단,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등에 본 협회에서 표창장을 수여하여 환경보호활동에 격려를 하였다. 이 학술대회는 국방부 예하부대의 자연환경보호활동과 본 협의 강상준 충북대학교수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. 앞으로도 국방부 자연환경보호 활동에 본 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고, 기회가 있으면 DMZ 생태계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의논하기로 하였다.

그 외에 본 협회는 WCC(세계자연보전연맹총회), 환경부 자연보전 국장간담회, 제주 보호지역 국제 심포지움, 2012 WCC총회 조직위원 창립총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.

지난 1년을 회고한데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의치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2011년엔 본 협회가 더욱 자연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.

2010년 12월 31일 회장
이학박사 조 덕 현